



《번역문》

## “간호원의 디렘마” The Nurse's Dilemma

<제 1 회>

이 책은 ICN회원국을 통해 제출된 일련의 간호업무수행상의 「디렘마」를 실은 것으로 25개국의 회원국에서 제출한 것을 수록하였으며, 1977년 동경 ICN 16차 총회에서 판매되었다. 이 책은 간호원에 의한 간호원을 위한 세계적인 책으로 간호원이 “혼자”라는 감정을 씻어 버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호부터 수회에 걸쳐 본 내용을 번역 전재한다.

<편집자 주>

### 발간의 취지

국제 간호 협의회(I.C.N)가 갖고 있는 2개의 상임 위원회 중 하나인 전문 사업 위원회(P.S.C)의 기능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국제 재단(FNIF)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교육 계획안을 이 사회에 전의하는 것이다. 1975년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간호원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책을 발간하는데 FNIF 기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P.S.C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C.N. 간호원의 윤리강령은 중요한 다섯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즉 간호원과 인간, 간호원과 업무, 간호원과 사회, 간호원과 협동자, 간호원과 전문직이다.

이 책은 각 회원국을 통하여 제출된 의회개인의 일련의 공적 기록을 실는다.

이 책은 1977년 동경에서 개최되는 I.C.N. 총회때 판매되도록 출판을 완료한다.”

I.C.N은 각 회원국에게 회원국의 간호원과 간호교육기관에 이 계획을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

을 했었다. 간호원은 자신의 경험에서 해결했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예”를 직접 I.C.N.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책에서 이름이나 나라명(名)으로 간호와 개인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덧붙였다. 그 결과 25개국의 간호원이 제출에 응했다.

어떤 “예”에서는 간호원 각자가 행한 사례 연구가 포함되었고 또 다른 “예”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가진 단체회의의 결과로 채택된 여러사건을 수집하여 내놓았다.

접수된 자료를 전부 출판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에 쫓겨온 자료와 비록 언어 문화 상호관계가 다를지라도 그 문제점이 매우 비슷한 자료가 많이 제출됐기 때문이었다.

I.C.N.이 접수한 각 자료간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간호원이 발생된 문제를 자신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간호원은 그 문제에 대해 동료 간호원이나 동료 의료인과의 의논하지 않았다. 우리는, 간호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려는 이 책이야말로 간호원에 의한 간호원을 위한 세계적인 책으로서 간호원이 “혼자”라는 감정을 씻어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간호 윤리에 대한 ICN/FNIE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

특히 우리의 출판사인 미국 간호 잡지사(A.J.N.C)와 사례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작성해주고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마무리해준 여러 간호원, 즉 간호학과 교수단, 텔아비브 대학에서 오신 간호원과, 레버거 버그만, 리프카 아담스, 레아 그레이프, 루드 룬, 아리카 로텐 베르그 간호원,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 웨이스 보건성에서 온 제바탈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 머리말(Introduction)

I.C.N.은 창단 이래로 계속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창단시기가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I.C.N.의 기록에서는 합법적인 활동과 불법활동이 보다 두드러진 역할을 했을지언정 불법활동이 취할 방향의 결정에는 우선 윤리적인 것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간호원의 윤리강령이 최초로 작성되어 마침내 1953년 브라질 상 파울로에서 개최되었던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윤리강령은 1965년에 한번 수정되었고 또 한번은 1973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윤리강령으로 수정되었다. (p. 12)

전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I.C.N.의 간호원의 윤리강령은 1973년 멕시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윤리강령은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원의 책임에 관해 광범하게 진술한 것이다. 이 윤리강령은 간호의 책임과 의무라는 새로운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전문직의 윤리강령을 포함한 초기 I.C.N.의 윤리강령뿐 아니라 현재의 윤리강령도 전통적인 윤리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오늘날 전문직 간호원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필요했고, 어느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행동강령이 필요했다. 어떤 경우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생(生)과 사(死)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

세계의 여행과 교통 수단이 신속히 이뤄진다는 것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여러 민족이 함께 자유로이 어울린다는 것을 뜻한다.

어느 지역의 우세한 단체라도 다른 소단체가

## CONTENTS

### I. Respect for Life

1. Conflicts related to malformed infants
2. Heroic efforts in sustaining life
3. Contraception and interruption of pregnancy

### II. Nurses and People

1. Values, customs, beliefs
2. Personal information held in confidence
3. Informing the patient
4. Meeting nursing needs of people

### III. Nurses and Practice

1. Maintaining standards of practice
2. Delegating and accepting responsibility

### IV. Nurses and Co-workers

1. Cooperative relationships
2. Safeguarding the patient

### V. Nurses and the Profession

1. Social and economic working conditions

자기네 가치기준에 따르도록 기대할 수 없다.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단체는 소단체 나름의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각 나라마다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의 발달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발달이란 그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간호원의 윤리강령은 윤리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단일 항목으로 다루었고, 또 간호원과 간호의 수준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1973년 I.C.N.의 간호원의 윤리강령은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원의 생애에 대한 모든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각기 다른 개인과 단체가 내린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윤리강령은 법이 아니라 적절한 전문행위와 조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간호원 모두의 행동 지침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윤리강령을 잘 알고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즉시 내려야 하고, 그 해결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예기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 책의 사용에 대하여

이 책의 목적은 간호원이 직면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호원끼리 논의하는데 그 기초로 사용 되는 것이다. 간호원은 환자를 간호하면서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정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어떤 행동지침은 변함이 없는 것도 있다. 상황에 따라, 간호원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정당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행동이 취해지면, 보통 그 행동은 변경될 수가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간호업무는 그 지역의 문화적 요인 및 종교적 요인과 간호원의 인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간호업무는 또한 각국의 간호원을 지배하는 법령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간호원이 행할 권리가 있는 어떤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

법률과 관습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상황이 어떤 나라에서는 결코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호원과 그외 여타사람(잠재적인 환자)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경우 간호원은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간호원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가는 간호원이나 환자는 그들의 관습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간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편집해서 만들었다. 많은 사례가 간호원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과 혹은 간호원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간호원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사례는 전적으로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다. 편집자는 윤리강령의 해석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상황의 전체적인 의미를 검토해보기 위해 간호원은 I.C.N.의 간호원의 윤리강령과 그가 일하고 있는 나라의 법률을 익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간호원 업무규정”이란 책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초적인 법규에 불과한 것이다. 기타 다른 여러나라의 법률은 어떤 상황에서 간호원이 내리는 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책의 사례에, 윤리강령의 몇가지 요점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간호원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즉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고통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어떤 사례는 우선 단순하고 솔직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 독자는 즉시 간호원의 행동이 ‘옳다’ 혹은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려 할 지도 모르겠지만, 독자가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황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제반 사례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독자는 첫번째 읽을 때 분명치 않은 많은 요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가 보건팀의 몇몇 동료들의 서투른 행위를 설명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서투른 행위가 자주 일어나서가 아니라, 서투른 행위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인 것 같다.

어떤 사례에는 인공유산, 안락사, 생명의 연장과같이 논쟁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문제와 관련된 행동이 내포되어 있다. 이 책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견해와 간호원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가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사례마다 몇가지 특수한 질문을 맡아 놓았다. 게다가 일반적인 성격을 띤 다음의 질문은 각 사례에 대한 검토를 더욱 깊게 할 것이다.

1. I.C.N. 간호원의 윤리강령중 어느 정도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
2. 간호원의 행동이 윤리강령과 맞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3. 간호원이 왜 그런행동을 했다고생각하는가?
4. 이런 상황에서 간호원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5. 만약 이런 상황이 당신의 직장에서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떤반응을 나타낼것인가?
6. 당신은, 비슷한 사례를 당신의 경험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7. 비슷한 사례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8. 그 사례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윤리강령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9. 그때, 당신이 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10. 그 상황에서, 당신이 실제로 행한 행동과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해 생각했었는가?

《보훈사업공보부 역》 <계속>